

# 한국 골든데이 24일...양궁·태권도·펜싱서 금맥 기대



### 사격 진종오·양궁 혼성단체전 등 첫 금 정조준 태권도 장준·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도 유력 광주여대 안산 출전 양궁서 금 5개 싹쓸이 도전

우여곡절 끝에 23일 막을 올리는 도쿄하계올림픽의 다음날인 24일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다.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 목표가 성사될지는 이날에 판가름 난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태극 기사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도쿄 유미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혼성단체전 16강전을 시작한다.

혼성단체전은 남녀 1명씩 팀을 이뤄 메달을 다투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국 대표팀은 23일 열리는 남녀 개인전 예선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를 혼성전에 내보낼 예정이다.

남자 김우진(청주시청),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일고), 여자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 등 6명으로 이뤄진

대표팀의 이번 도쿄올림픽 목표는 남녀 개인·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을 포함한 금메달 5개 싹쓸이다.

안산은 대학 선배인 기보배(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와 최미선(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 등 여자 양궁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꼽힌다. 여자 대표팀 중 막내인 그는 세계 양궁계에선 유망주다. 광주체고 2학년이던 2018년부터 매년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9년 7월 처음 출전한 세계 대회(독일 베를린 월드컵)에서 개인, 혼성 2관왕에 올랐다. 현재 세계 랭킹은 6위다.

혼성단체전 결승은 오후 4시 45분에 열려 5시 4분에 끝난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 낭보를 기다릴 시간이다.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 양궁에 앞서 '사격 황제' 진종오(42·서울시청)의 금메달 명종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한국 선수단 최고령이자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진종오는 이날 10m 공기 권총 본선과 결승을 맞

닥아 치른다.

결선 시작 시간은 오후 3시 30분으로 40분 후면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

진종오는 금메달을 포함해 메달 1개만 보태면 역대 한국인 올림픽인 중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다.

그는 2004 아테네 대회 50m 권총 은메달을 비롯해 2008 베이징 대회 50m 권총 금메달과 공기권총 10m 은메달, 2012 런던 대회 50m 권총과 남자 10m 공기권총 2관왕, 2016 리우 대회 50m 권총 3연패 등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로 올림픽에서만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저녁을 먹고 오후 9시께면 펜싱과 태권도에서 금빛 희소식이 대한해협을 건너갈 준비를 한다.

여자 49kg급 심재영(춘천시청)과 남자 58kg급 장준(한국체대)은 이날 오전부터 16강전을 치러 각각 오후 9시 30분, 9시 45분에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한국 태권도의 미래로 꼽히는 장준은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세 차례 월드컵대회에서 우승한 기대주로 처음으로 출전하는 올림픽에서도 화려한 공격으로 시상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오상욱(성남시청), 구본길·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전하는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도 금메달 유력 종목이다.



28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미디어데이에서 사격 국가대표 진종오의 눈가리개에 도쿄올림픽 로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은 세계랭킹 1위 오상욱을 앞세워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 우승을 정조준한다.

2012 런던올림픽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구본길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브르 개

인전 동메달리스트인 김정환의 기량도 세계 정상급이어서 '믿고 보는' 일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은 24일 오후 9시 28분에 시작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김학범호 첫 상대 뉴질랜드 전력 만만찮네

### 호주와 평가전서 2-0 승리...같은 조 온두라스는 일본에 1-3 패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에 출전할 한국 24세 이하(U-24)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최종 리허설을 앞둔 가운데 조별리그 상대 팀들도 마지막 실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김학범호의 올림픽 조별리그 첫 상대인 뉴질랜드는 12일 일본 지바현 이치하라의 ZA 오리프리스타디움에서 호주와 평가전을 치러 2-0으로 승리했다.

후반 10분 크리스 우드가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승 골을 터뜨렸고, 후반 38분 일라이자 저스트가 한 골을 더 보탤다.

1991년생으로 30세인 우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버리 소속의 공격수로, 이번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선발됐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우드는 2017-2018시즌부터 버리에서 뛰며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추가 골을 넣은 저스트는 2000년생의 공격수로, A대표팀에도 발탁돼 데뷔전을 치른 경험이 있다. 덴마크 1부리그 헬싱외르 소속이다.

이들을 선발로 앞세워 승리를 챙긴 뉴질랜드는 15일 호주와 한 차례 더 맞붙은 뒤 한국과 22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호주는 C조에서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집트와 C조에서 경쟁한다.

김학범호와 28일 B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맞붙을 온두라스는 12일 개최국 일본과 오사카에서 격돌해 1-3으로 졌다.

9일 입국한 온두라스는 전반 일본의 공세에 시달리다 두 골을 먼저 내줬다. 후반 상대 자책골로 한 점을 만회했으나 막바지 도안 리스(에인트호번)에게 쐐기 골을 허용했다. 도안이 결승 골을 포

함해 멀티 골을 기록했다.

온두라스의 미겔 팔레로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치고 "전반 상대의 높은 집중력에 밀려 원래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반 들어 점유율 높이고 나아졌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량이 100% 올라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온두라스는 17일 와카야에서 독일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루마니아, 뉴질랜드, 한국과 차례로 만난다.

한국의 2차전(25일) 상대인 루마니아는 출국에 앞서 자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으로 몸을 푼다.

11일 첫 대결에선 1-1로 비겼고, 14일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들과 8강 진출을 다툰 김학범호는 강호 아르헨티나, 프랑스를 상대로 모의고사를 치른 뒤 17일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다. /연합뉴스

## 'KLPGA 6승' 박민지 세계랭킹 14위로



박민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올해에 만 6차례 우승한 박민지(23)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4위로 올라섰다.

박민지는 12일 자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18위보다 4계단이 오른 14위가 됐다. 이는 박민지의 개인 최고 순위다.

11일 경기도 파주에서 끝난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에서 우승한 박민지는 투어 통산 10승, 시즌 6승을 달성했다.

그는 이번 시즌 상금 11억2804만원을 모았는데 이는 KLPGA 투어 사상 최단기간 시즌 6승 및 시즌 상금 11억원 돌파 기록이다.

박민지는 올해 초 세계 랭킹 41위였다가 국내 투어 6승을 쓸어 담으며 1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벨리 코르다(미국)가 1위를 지켰고 고진영(26) 2위, 박민지(33) 3위, 김세영(28) 4위, 김효주(26) 5위 순으로 한국 선수들이 2~5위에 늘어났다. 12일 끝난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우승자 하타오카 나사(일본)는 11위에서 9위로 올라서며 10위 내로 진입했다. /연합뉴스

##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 성황리에 막 내려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에서 주최한 2021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지난 1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드라이빙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슬라럼, 8자코스, 하중이동, 드리프트 등이 집약된 집카나 대회로 열린 이날 경기는 지정된 코스를 빠르게 통과하는 타임어택 종목과 본인이 지정한 기록에 가장 근접한 기록을 순위로 정하는 타임타기 경기로 진행됐다.

박재홍(Redcon Motorsport 소속)은 56초71을 기록, 타임어택 우승자가 됐다. 타임타기 1위는 겐타임 0.02초를 기록한 구본삼(개인 출전)이 차지했다.

조성철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회장은 "다양한 모터스포츠를 개최해 모터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모터스포츠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힘



2021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지난 1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렸다.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영암튜닝카레이싱대회는 3회 대회를 마쳤으며, 오는 8월 전남모터페스티벌, 10월 전남GT대회, 대구레이싱대회와 연계해 모두 6회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주)ASA와 영암군이 후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디 오픈 김 빠진 대회? ...세계 톱 10 모두 출전

### 한국 선수는 안병훈 유일

많은 선수가 출전을 포기했지만,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디 오픈(브리티시 오픈-총상금 1150만달러) 우승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올해 제149회를 맞는 디 오픈은 1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잉글랜드 켄트 해안에 있는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조지스 골프클럽(파70·7189야드)에서 열린다.

2019년 이 대회 트로피인 클라레저그를 품에 안은 세인 라우너(아일랜드)는 2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세인트조지스 골프클럽은 10년 만에 디 오픈의 무대가 됐다. 모래 언덕으로 구성된 험난한 링크스 코스에 날씨, 바람과도 싸워야 하는 환경이여

서 누가 우승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2011년 이 코스에서 우승한 베테랑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는 1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안병훈(31)만 출전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디 오픈에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 더스틴 존슨(미국), US 오픈을 제패하며 메이저 우승급 수집을 시작한 세계랭킹 2위 온 램(스페인)이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저스틴 토머스(미국), 폴린 모리카와(미국), 켄 더 쇼플리(미국), 브라이슨 디샬보(미국),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브룩스 켈파(미국), 패트릭 리드(미국), 티릴 해턴(잉글랜드) 등 세계랭킹 3~10위 선수도 모두 출전한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 즐거움 문화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위도우
- 2관 블랙 위도우
- 3관 블랙 위도우,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오픈리얼
- 4관 랑중
- 5관 블랙 위도우
- 6관 랑중
- 9관 블랙 위도우,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이번엔 잘 되겠지
- 7관 씨네커풀 크루엘라, 파이아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8관 씨네커풀 발신제한: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업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을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